

## 자동차

Sector Issue Brief

2024. 11. 19

## Check Point

- '자율주행차' 연방 규제 완화
- 테슬라와 자율주행 수혜주 HL 만도

## 부품사 내 자율주행 수혜주 찾기

| Analyst 이병근 | bglee@ls-sec.co.kr

## 트럼프 정권 인수팀 '자율주행차' 연방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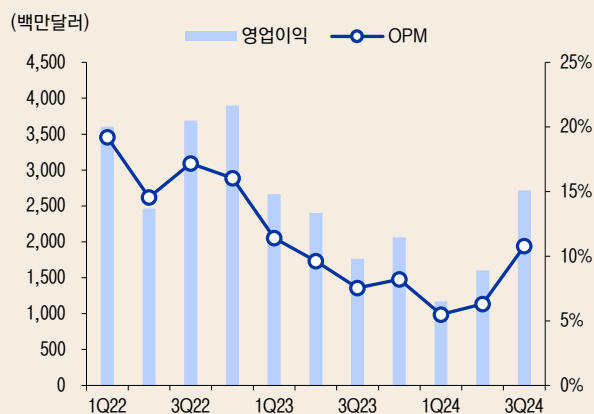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8일 국내 자율주행 관련 주식 역시 급등했다. 규제 완화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1) 완전 자율주행차 연간 배치 한도 업체당 2,500대 → 10만대로 확대, 2) 반드시 운전자가 앉아야하는 의무사항 완화, 3) 운행 허가권 각 주 아닌 연방정부 일원화 추진이다. 현재 양산차는 고속도로를 보조하는 레벨 2.0~2.5 수준이다. 레벨 4.0~5.0단계 자율주행차는 시범 운행이라도 운전자가 반드시 앉아있어야 한다. 미국 교통당국은 배치 규모와 운전 조건 등 자율주행 규제가 까다로웠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2026년, 저가형 전기차는 2025년 상반기 생산될 계획이다. 저가형 모델의 경우, 차세대 플랫폼 일부와 현재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재 차량 라인업과 동일한 제조 라인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 로봇택시 행사에서 사이버캡 출시 전 2025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3와 모델Y에 대해 Unsupervised FSD를 시작할 예정, 모델3와 모델Y는 규제 당국 이 승인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연방 정부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될 시 출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테슬라와 자율주행 수혜주 HL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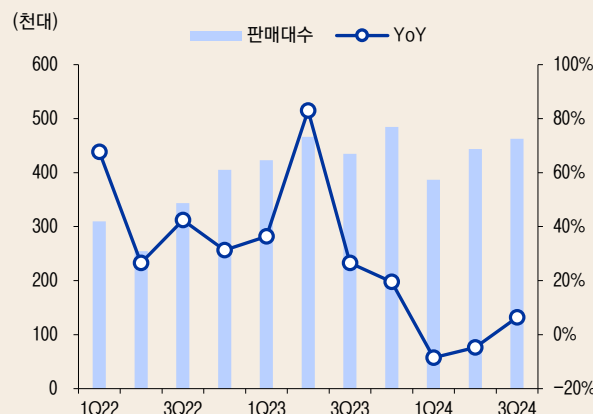
부품사 내 자율주행 수혜주로 HL만도를 추천한다. HL만도는 북미 완성차 업체들에게 ADAS와 IDB 등을 공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출시가 빨라질수록 이에 대한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동사는 3세대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를 개발 및 양산 준비까지 끝내놓은 상황, 자율주행차 생산 승인 시 현대차그룹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오트모버는 자율주행차 테마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순 있으나, 현대차그룹의 미들웨어를 담당하고 있기에 이번 이슈에 있어 수혜주라 보기는 어렵다.

그림1 테슬라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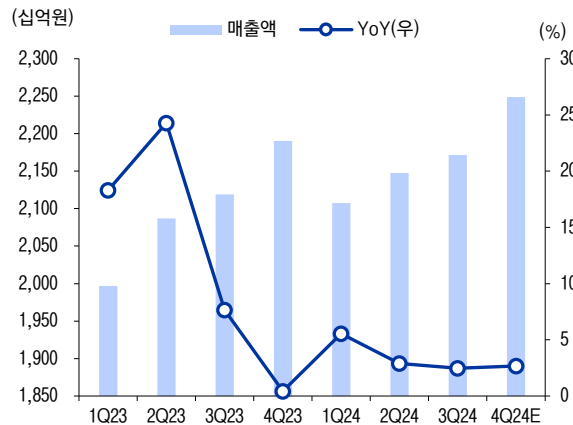
자료: Tesla,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테슬라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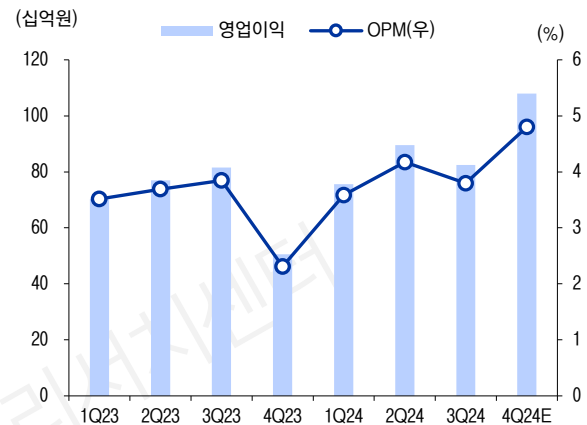
자료: Tesla,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HL 만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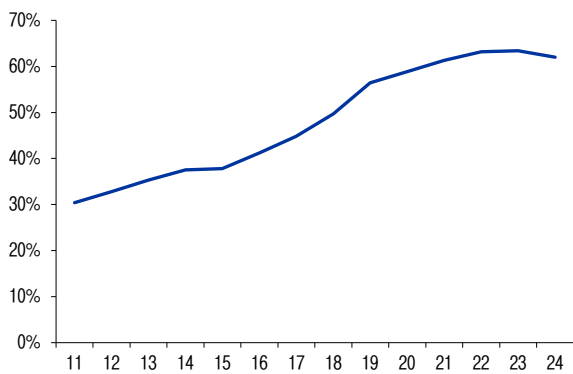
자료: HL만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HL 만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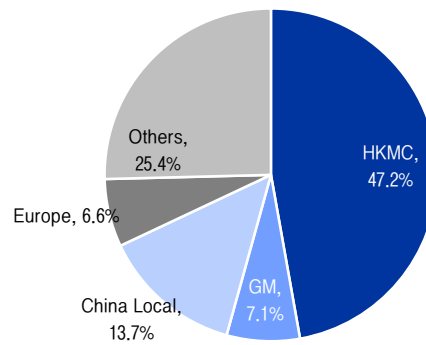
자료: HL만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HL 만도 전장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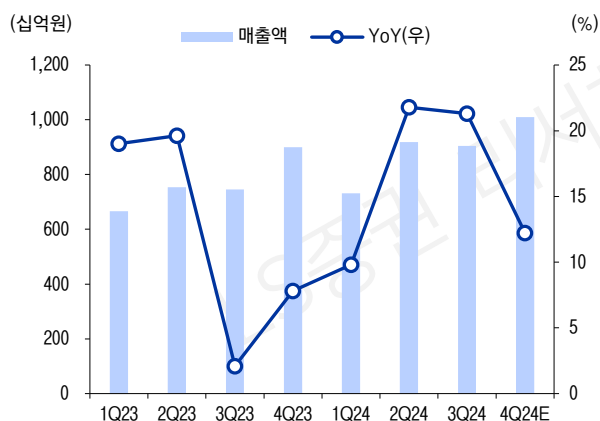
자료: HL만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HL 만도 고객사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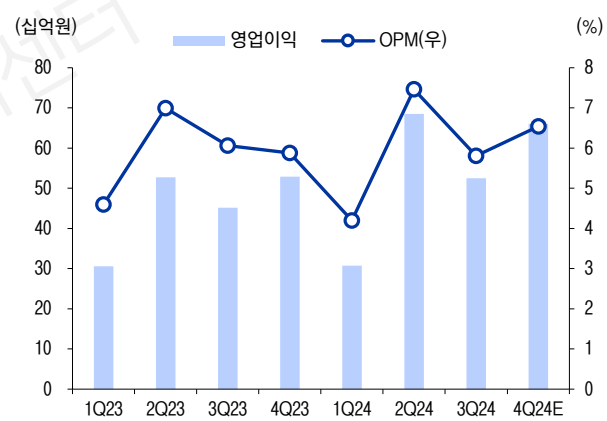
자료: HL만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현대오트모에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현대오트모에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현대오트모에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현대오트모에버,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병근).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3.9% 6.1%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3. 10. 01 ~ 2024. 0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